

마켓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코스피 순환매 요인?

코스피 내 업종 순환매 가능성 확대. 다만 코스닥 수혜는 미지수

Strategist 김재승
jaeseung.kim@hm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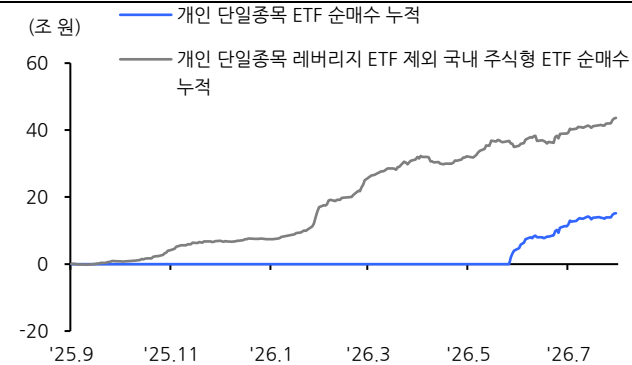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자금 쏠림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달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투자요건 강화를 오는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기본예탁금 산정 시 계좌 내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의 시가 70%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했는데, 향후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되어 현금만 인정된다. 현금 인정의 세부 방식에 대해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도시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T+2일부터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해 당일 반복적인 회전매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11월로 예정되었던 최소 매매단위 확대(1좌→20좌) 조치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이다. 나아가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예: 금융투자상품 중 총 투자금액 20% 이내 제한) 등 추가 조치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7월 이후 수급을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개인 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순매수 강도가 7월들어 약화되었다(그림1). 개인 투자자들은 5월 27일 상품 출시 이후 6월 말까지 한달 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11.3조원 순매수했으나, 7월 이후로는 3.8조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개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제외 국내 주식형 ETF 순매수 금액은 2.2조원에서 4.7조원으로 확대되었다.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내 주식형 ETF의 총 AUM 대비 레버리지 ETF AUM 비율이 10년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왔다(그림2). 7월 조정장을 거치며 단일종목을 포함한 레버리지 ETF로 자금 쏠림이 평균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셋째,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형 ETF 중 레버리지 ETF의 거래대금 비중의 장기 평균이 40% 수준인데, 현재 46%로 낮아졌다(그림3).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급증으로 인한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비중 확대가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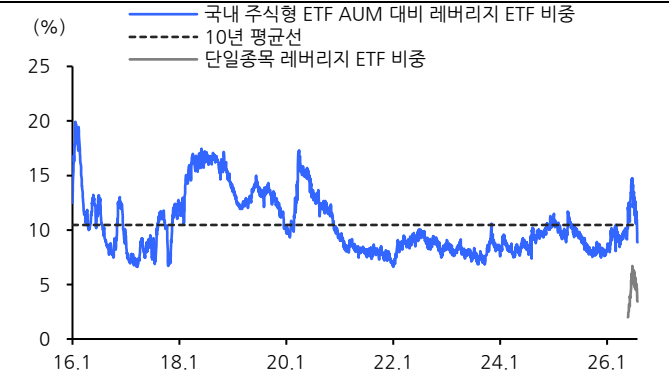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코스피 내 순환매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5월부터 개인의 국내 주식형 ETF 거래대금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코스피 내 쏠림 현상이 확대되었다(그림4).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피 내 ADR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둘째, 코스닥의 수혜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으로 ETF가 대중화되고 있다(그림5).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ETF로 갈아타고 있는 것이지, ETF 이외의 개별종목으로 갈아타는 신호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이 ETF 투자를 많이할 수록 코스닥 거래대금 전체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이는 코스닥의 수급 공백을 야기한다(그림6). 개인의 ETF 투자시대엔 코스피 및 대형주가 자금 흐름에 우호적이다.

〈그림 1〉 개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순매수 강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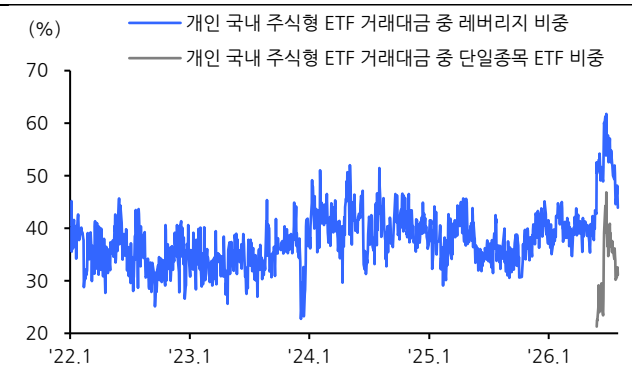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2〉 국내 주식형 ETF AUM 대비 레버리지 ETF 비율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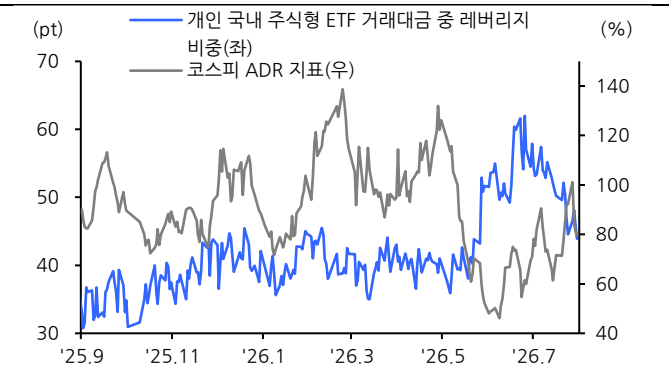
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 ETF에 포함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3〉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비중 급등도 정상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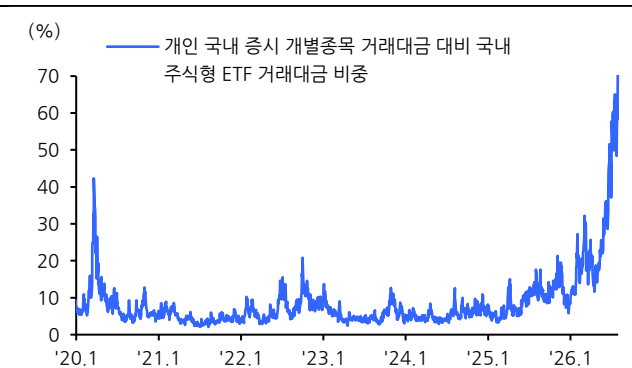
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 ETF에 포함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4〉 개인 투자자 레버리지 비중 감소는 코스피 순환매 강화



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 ETF에 포함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5〉 개인 투자자 ETF 투자 비중 확대 중



주: 개인투자자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개별종목 거래대금 대비 개인투자자 국내 주식형 ETF 거래대금 비중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6〉 개인 ETF 투자 비중 확대는 코스닥 소외 야기



주: 개인투자자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개별종목 거래대금 대비 개인투자자 국내 주식형 ETF 거래대금 비중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김재승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